

전이성 폐암의 외과적 치험

국립의료원 흉부외과

이종호, 임용택, 강경훈, 김병렬

최근 항암보조요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원발성 암의 폐로 전이에 대한 예후는 불량하다. 이에 비해 전이성폐암에 대한 외과적 요법후 좋은 결과를 보이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전이성 폐암에 대한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본원의 경우를 관찰하였다. 1983년부터 1997년까지 수술적 치료를 했던 17례를 분석하였고 Kaplan-Meier 방법으로 5년생존율을 구하였다. 총 17명의 환자중 남자가 10명, 여자가 7명으로 남녀비는 10:7 이었다. 나이는 17세에서 65세까지였고 평균연령은 42.8세였다. 17례중 12례에서 증상이 있었으며 무증상인 경우는 5례있었다. 증상으로는 혈담과 객혈, 기침, 흉통의 순이었다. 전이성 폐암의 진단은 전례에서 단순 흉부사진에서 관찰되었고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정확한 위치를 평가하였다. 타 장기로의 전이유무의 확인 방법으로는 전신골주사검사 및 복부 초음파를 이용하였고 수술적합여부는 폐기능 검사 및 흉부전산화 단층촬영을 참고하였다.

원발성 종양의 종류로는 여성 생식기암이 3례, 사지에서 생긴 육종이 4례, 그밖에 신장암,부신암,위암, 직장암,사골강암 등이 1-2 례씩 있었고 원발장기를 모르는 선암도 1례 있었다. 원발부위를 알수없었던 1례에서는 술후 조직검사를 통해 전이성 폐암으로 진단되었다. 이 1례를 제외한 16례에서 1년 이내에 발견된 것이 4례였고 2년이내에는 3례, 2-3년 이내가 5례였으며 3년이상은 4례 였다. 평균 종양자 유시간은 35.6개월이었다. 전이성 폐암의 발생부위는 다양하여 우측에 7개소, 좌측이 13개소로 좌측이 많았고, 폐내의 위치로는 상엽이 7개, 중엽이 3개, 그리고 하엽이 10개로 하엽에 발생한례가 많았다. 16례 전례에서 후측방개흉술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병변의 위치와 폐기능을 최대한 보존시키는 술식을 시행하였으며 1례에서는 폐와 식도를 동시에 침범하여 공장음식관을 시행하였다. 단일폐엽절제술이 8례, 전폐적출술이 3례가 있었으며 부분절제술은 1례가 있었고 쌍폐엽절제가 1례,폐엽절제술 및 부분 절제를 같이 시행한 경우가 3례 있었으며 이중 1례는 양측에 전이성폐암이 있어 양측 개흉술을 시행 하였다. 술후에 실시한 보조요법은 항암요법을 시행한 경우가 10례로 가장 많았으며 항암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 경우가 2례, 방사선치료만 시행한 경우가 1례 있었다. 4례에서는 별다른 보조요법없이 대증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술후 재발하였던 3례에서는 추가로 보조요법을 실시하였다. 수술을 시행한 17례의 전이성 폐암환자에서 5명은 술후 각각 8개월,10개월,10개월,20개월,29개월후에 사망을 하였고 사망례 5례 중 4례가 종양자유기간이 1년 미만이었었고 이들 3례가 모두 16개월 이전에 사망한 반면 종양자유기간이 1년 이상인 11례 중 1례만이 20개월에 사망한 예를 보였다. 나머지 12례의 환자들 중 3명은 술후 각각 2개월,2개월,15개월후 재발하여 현재 외래추적관찰중이며 9명은 재발없이 건강한 상태로 외래추적 관찰중에 있다. 술후 평균 생존기간은 40.5개월이었다. Kaplan-Meier 방법으로 구한 5년생존율은 65%였다. 이런 결과로 보아 전이성 폐암의 수술후 생존율은 만족할만한 결과이며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지만 전이성폐암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수술적치료로서 완전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